

“낙산사 흥련암, 해상안전 신앙적 거점”

조용헌씨 ‘의상법사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해상용왕 협시배치 용신앙 불교적 흡수 호국불 상징에서 아미타신앙 전환”

체적으로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흥련암 법당의 구멍은 관음보살 친견과 해조음을 관하기 위한 용 도라고 주장해온 조 강사는 이번에는 용이 들락거리기 위한 통로라는 가설을 하나 더 덧붙였다. ‘용죽불’ 사상이 성행하던 당시 신라사회에서 ‘용죽관음’의 등식을 따르는 사례는 흥련암이 최초라고 추정했다. 관음신앙에서 관음과 용은 산신과 호랑이처럼 짝으로 잘 나온다. 통상 관음은 남해에 주처하고 있는데 흥련암이 해동에 위치한 관음도량이라는 것도 특이하다. 조 강사는 그 이유를 신라인들이 신라를 북쪽으로 생각하는 오대산 신앙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오대 중 동대는 푸른

바탕의 관음방이고 오형에서 동쪽은 청색과 용을 상징함을 들었다. 이로 인해 흥련암은 관음도량이 될 수 있는 원리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 강사는 “흥련암 창건설화에 나타나는 용은 재래의 용이 의상대사에게 포섭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재래의 용신앙이 불교내에 흡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용으로 상징되는 바다의 신앙이 불교와 흡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상대사의 창건 사찰인 부석사 역시 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무량수전 내부에는 목조로 된 8미터 크기의 용조각이 장식돼 있고 무량수전 아미타불 대좌 밑에서 그 두부가 시작되어 S자형으로 법당 앞들의 석등과 정자석 밑의 미루가 끝나기까지 십수간 길이의 용형을 조각한 석물이 땅 속에 묻혀 있다.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은 바로 이 석조 용의 머리 위에 얹혀 있다. 조 강사는 용의 머리 위에 아미타불이 조성되어 있는 무량수전



○흥련암 관음전에 있는 달집 용두.

의 구조는 의상대사 설립 당시 품었던 종교사상적 의지가 직접적으로 투영돼 있다고 추정한다. 조용헌 강사는 “의상 이전까지 용은 호국불의 의미지만 의상의 용과 아미타불 배치는 불교신앙적 측면에서 상당한 전환”이라며 “신라불교가 현실참여적이고 호국적인 마립간신앙에서 현재초월적이며 개인적인 아미타신앙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보여주는 사찰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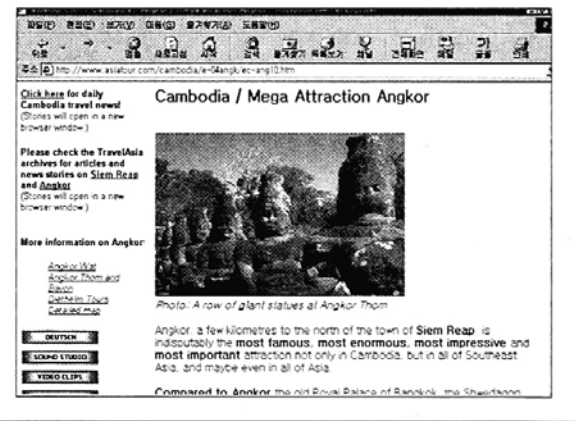
부처님 사이버 기행

캄보디아 투어

프놈펜 사원·앙코르 사원등 소개 틀 스템 박물관과 연동서비스 제공

부처님의 가르침에 오롯이 귀의한 순박한 농민과 불가사의한 문화유산들이 불교와 함께 하는 캄보디아를 가상 공간에서 방문해 보고 싶다면 인터넷 ‘캄보디아 투어(Cambodia Tour)’ 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캄보디아 불교문화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시아 투어사(社)가 인터넷 상에 오픈한 ‘캄보디아 투어’ 사이트는 △불교 개관 △프놈펜 사원 △앙코르 사원 △앙코르토폰 사원 등의 메뉴를 제공. 불교 행사와 사원을 집중·소개하고 있다. ‘불교 개관’ 서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불교는 79년부터 되 오늘날 세계인의 눈길을 모으는 문화유산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9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진행된 다각적인 보수·복원 작업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앙코르 와트에서 북쪽으로 3.5킬로미터에 위치한 앙코르토폰도 캄보디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교 유적이다. ‘앙코르토폰’ 서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사원인 앙코르토폰은 자야바르만 7세가 관세음보살에게 바치기 위해 증정한 불멸의 업적이다. 이 서비스는 51개의 탐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바이은 유적에 대한 13장의 그래픽을 열람할 수 있다. 이들 사진에는 204구의 관세음보살상 모습과 대 크메르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조물들이 담겨 있다. 오종욱 기자 (gobacoo@buddhapia.com)

△http://www.asiatour.com/cambodia/e-03phno/ec-phn24.htm



“불교의 공간성 회복할 때 토착화된 불교 더 잘 이해”

소홍렬 교수, 비판불교 문제제기

고려대장정연구소(소장 조립)는 ‘비판불교의 파라독스’를 주제로 16일 제5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비판불교에서처럼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를 공간적으로 이해할 필요를 역설한 소홍렬 교수(포항공대)는 “오늘의 시대가 공간적 사유를 더 필요로 하고 있고 불교는 본래 공간성을 중요시해 온 종교이기 때문에 마스모드의 역설과 갈등을 지성공간과 감성공간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그 갈등의 해결을 영성공간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는 공간적 사유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며 “불교의 공간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특수 문화적 공간에 토착화된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불교를 파라독스 개념으로 비판하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뜻은 현대계의 이론화 수준에서는 제 거될 수 없는 파라독스를 찾아내어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는 데 있다. 소 교수는 지성주의 인식론, 근본주의 방법론, 무이론적 존재론, 문화주의적 가치론, 마스모드의 파라독스를 지적해냈다.

소홍렬 교수는 “비판불교를 불교(종교)가 아닌 불교철학으로 받아들이고 때 비판의 역할과 비판의 힘이 더 분명하게 된다”며 “남은 문제는 불교철학이 또는 불교와 철학이 비판불교의 온갖 파라독스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불교는 우파니샤드철학 아류아니다”

조준호 박사 주장

인도학 불교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베다시대 브라흐마나시대 아리아나카 시대 우파니샤드시대 이후에 불교와 자이나교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 도식적인 연대기로 불교의 기원을 구하던 기존 연구방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의 제23차 월례발표회에서 ‘불교의 기원과 우파니샤드 철학-불교는 우파니샤드 철학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가?’를 발표한 조준호 박사는 “초기불교에서 우파니샤드 문헌에 대한 언급이나 브라흐만은 나타나지 않으며 붓다가 우



파니샤드 철학과의 접촉이 없었기에 기존 학계에서 불교가 우파니샤드 철학의 아류처럼 해석돼 온 것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다크리슈난이나 나카무라 하지메 등 인도학불교 학자들의 해석처럼 불교는 바라문교 전통의 연장선상 또는 반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처음부터 불교가 불교만의 독자적인 성격의 종교로 출발할 수 있었음은 케사푸티야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붓다가 전통과 권위에 대

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세기, 4성제, 무아의 교설이 불교 흥기 전후의 같은 사문종교인 자이나교에서나 우파니샤드를 비롯한 바라문 전통에서 찾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초기 우파니샤드의 성립지역은 불교의 발생지인 동북부 인도인데 불교전에 성립할 수 없음을 다른 고대 인도 문헌에서도 뒷받침해준다고 “바라문교 전통인 우파니샤드와 사문종교 전통인 불교는 사상적으로 혈통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사문종교의 기원을 바라문 종교의 반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2회 한국정토학회 세미나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는 28일 오후2시 동아대 교수회관에서 ‘21세기의 불교신앙의 과제’를 주제로 제2회 한국정토학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태원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승가의 신행방향’을, 홍윤식 교수(동국대)가 ‘정토와 의식’을, 선진규 회장(전국신도회)이 ‘새천년 정토신앙의 포교적 당위성’을, 정철호 박사(동아대)가 ‘21세기 불교 신행의 과제-재가불교의 입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정태혁 박사, 김재일 회장(동산반야회), 김영미 교수(이화여대) 등이 참석한다.

학술단신

동국대·북경대 학술회의

동국대·북경대가 주최하는 제2회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21일부터 24일까지 북경대학 중국전통문화연구센터에서 열렸다. ‘전통문화와 현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 송석구 총장(동국대)은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 문제’에 대해 기초강연을 했다. 이종찬 교수는 ‘한중 외교사 별견(甞見)’을, 임기중 교수는 ‘19세기 한중 외교화담시의 현대적 의미’를, 송재운 교수는 ‘유가전통과 현대 한국 가족문화’를, 박영환 교수는(이

상 동국대)는 ‘글로벌 사상 경계의 현대적 의의’를, 윤사순 교수(고려대)는 ‘유교 윤리의 현대적 가용화’를 발표했다.

꽃명명 고려종 종합고찰

용인대학교 부설 전통문화연구소(소장 김준남)는 27일 오후2시 용인대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계미(癸未)명 고려종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제4회 정기 학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최응현 학예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이 ‘계미명 범종의 양식적 특징과 관련’을,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범종의 불교적 기능과 의미’를, 나형용 교수(서울대)가 ‘계미명 고려종의 주조법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다.

마음 맑히는 책들 3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승산 행린 선사(崇山 行禪 禪師)

승산 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흥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흥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승산 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승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훑을 때, 내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역시이문은 ‘동은비,한지,익어,긋님,도연이,아,아,아’는정신으로 시,덕,리,박,이,박,작,물,만,들,것,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부처님께 재를 털면

